

메타텍스트, 상호텍스트, 하이퍼 텍스트

- 한불고전번역 예를 통해서 본 텍스트성과 번역의 쟁점 -

최미경*

Choi Mikyung (2023). Metatext, intertext or hypertext: Textuality and issues in Korean-French translation of a classic literary work.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tudy issues arising in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to the modern Korean language and French. Given that the field of literary translation from Korean classics into French consists of only a small number of translators, the number of published classics is not important. When the translation is done by a Korean scholar who is keenly familiar with Chinese characters and translates the text into their mother tongue, they may opt to transfer the source language, which very often consists of Chinese characters with transcriptions, into modern Korean with annotations, explanations and intertext. The target text then becomes a kind of metatext of the original, as opposed to an independent hypertext that can be approached by readers without any intertext. This study analyzes the various steps in the process of double translation, from understanding to reformulation in the context of transtextuality as theorized by Gérard Genette. The key concept of “hypertext” makes equivalent literary translation justifiable, translation being defined as an operation from text to text, not from language to language, and an artistic work in itself. To ensure that the resulting output is accessible for foreign readers, it is essential to respect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predicate, and between some paratexts and intertexts. The conclusion drawn by this study is that, as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classical text translation, a poet or writer should work in collaboration with a Chinese literary researcher to produce a literary work with fixed meaning, and then collaborate with a foreign language translator, for example a French translator, to be*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able to provide quality literary translation based on a method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s described in this study.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words: classical literary translation from Korean to French language, hypertext, intertextuality, metatext, translation method

주제어: 한불고전번역, 하이퍼텍스트, 상호텍스트성, 메타텍스트, 번역방식

1. 서론

한국고전작품의 경우, 언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20세기 이전의 저술은 한문이거나 한문이 혼용된 한글 고어체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거나 한자를 포함한 저작으로 중국고전을 끊임없이 참조하는 상호텍스트성을 특성으로 한다. 한국의 고전문학 텍스트는 그 역사성과 문학성이 전형성을 띠는 점에서 주네트(Genette 1979: 8-13)에 따르면 초텍스트(architext)이며 원천 텍스트이다. 다양한 담화 양상과 문학의 장르적 특성을 갖는 각각의 문학텍스트는 특정시대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갖는 동시에 통시대적 초월성을 갖는 원천 텍스트이기도 하다.

한국의 고전문학은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이전의 봉건주의시대의 문학을 일컬으며, 한자의 전래와 함께 초기부터 불교의 사상적 영향 및 유학(儒學)의 이념을 중시했다. 즉 한국 민족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그 미의식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학을 일컫는다.

이진명(2008: 105)은 1900년을 전후로 고전문학을 나누되, 한문서적은 20세기 이후에 저술되었어도 고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의 정당성은 한문으로 저술하는 경우, 표현된 내용이나 정서가 한글저작들과 다르며, 또 대부분 대상독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성립한다. 20세기 초에 한글소설들이 연재를 목적으로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이라면 한문전용 또는 혼용 저작의 경우 시대적 거리뿐만 아니라 내용과 정서적인 면에서 일반 독자들과 거리가 있다. 특이할 점은 국문 작품으로 분류가 된 경우에도 한자, 중국고전인용이 많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한글 문학 세대가 등장하기 이전의 작품은 일종의 이중언어 상태인 것이다. 유럽의 고전문학이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의 어원을 간직하

www.kci.go.kr

고 있거나 일부 언어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할 정도로 미적기준, 사고방식, 문장의 전개, 어휘 등이 중국 고전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는다.

현대독자는 고전에 접근하기 위해 문화적, 언어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현대국어로 번역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전성운(2016: 120)에 따르면 고전서사 문학들은 비록 현대에 한글로 번역이 되어도 그 속에 담긴 깊은 문제의식, 주제의식,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의 함의와 중의성, 다른 고전 문헌에서 차용한 내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문고전 작품은 원문 자체도 복잡성을 띤다. 가장 분석적으로 작품을 읽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한문 고전 문학의 번역에 종사한 번역자들 역시 텍스트와 언어의 복잡성에 대해 주목해왔다.

한국고전시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안바롱(Ann-Baron 2005)에 따르면 고전시의 경우, 중국시의 이미지, 표현, 상징, 인용과 더불어 창작자의 창의성과 문체가 드러난다고 한다. 독자가 한문고전시를 이해하기 위해 중국고전시에게도 조예가 깊어야 한다.

존과 박(John and Park 2000) 역시 『구운몽』의 경우 17세기의 중국의 음악, 문학, 종교와 역사에 대한 풍부한 암시를 포함한 중국문학의 총체적 특징을 띠고 있음을 번역 후기에서 지적한다.

또 다른 프랑스어 번역가 보이(Bois 2017)도 박지원의 『호질』 프랑스어 번역본의 서문에서 중국문학에 대한 인용과 암시가 많기 때문에 번역문 역시 다양한 상호텍스트성을 보완하는 구조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번역가들의 언급을 미루어보면, 한국고전의 번역은 이중언어, 문화환경에서 생성되어 다층성을 함유한 텍스트를 분석, 등가로 전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다층성을 전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적절한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보고, 몇 예를 통해 극복의 가능성을 엿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고전텍스트의 현동화와 다층텍스트성

고전텍스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은 공식적으로 한국 고전번역원에서 전문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대 한국어로 전환된 텍스트의 일부

는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한문텍스트의 현대 한국어 번역은 한문과 한글이 병기된 이중어 텍스트가 많다. 또 서문, 후기 등 본문 텍스트를 동반하는 곁텍스트(paratext)가 존재한다. 뒷부분의 분석을 통해 보겠지만, 현대어 번역 텍스트는 의미가 확정된 단일어 텍스트이기보다는 복합적인 텍스트망을 이루고 고전텍스트와의 링크 내에서만 의미의 완결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텍스트가 번역 등을 통해 다른 텍스트와 맺는 다양한 관계, 문학텍스트들 간의 의미망을 이루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대해 주네트(1982)는 가장 가시적이며 당연히 가장 잘 알려진 치환의 형태이며,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된 번역문을 원문에 대한 하이퍼텍스트(hypertext)라 규정한다. 한편, 작품 속에서 상호텍스트(intertext)는 다른 문학작품과의 연결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며, 사실 문학작품은 많은 상호텍스트성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전텍스트의 현대어 판본에 많은 서문, 후기, 각주 등은 곁텍스트(paratext)라고 규정할 수 있다. 주석, 설명 등은 메타텍스트(metatext)이다. 하이퍼텍스트성은 기존에 존재하는 하나의 텍스트(hypotext)에 연결되는 텍스트 관계이다.

주네트의 개념에 의거해보면 고전의 현대한국어 번역문은 원문에서 독립된 하이퍼텍스트로 존재하지 못하며, 주해 등의 메타텍스트, 원문이 병기된 상호의 다층적 구조를 이루며 원문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한문텍스트의 번역이 갖는 특수성에 상관이 기인한다고 보인다.

고전의 현대한국어 번역문이 현대 한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어인 한문어휘를 그대로 음차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원문을 이해하고 탈언어화를 거쳐 재표현을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원문과 상호텍스트의 경계가 모호하여 곁텍스트나 메타텍스트 없이는 원문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번역작업의 모호성은 몇 역자들이 작품을 엮었다 또는 풀어 읽었다고 명시하는 데에서도 엿보인다.

구인환의 『춘향전』(구인환 2002)의 경우, 엮음이라고 적어 번역이 아닌, 텍스트를 정리한 저자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의 엮은 방식을 텍스트의 일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한림이 사은숙배 하직하고 치행차려 남원부에 도입하여 선치민정(善治民情)하니, 사방에 일이 없고 방곡의 백성들은 더디 옴을 칭원한다. 강구연월(康衢煙月) 문동요(聞童謠)라 시화연풍(時和年豐)하고 백성이 효도하니 요순시절이라.

www.kci.go.kr

이때는 어느 때뇨, 놀기 좋은 삼춘이라. 호연비조(胡燕飛鳥) 못새들은 농조화답(弄調和答) 짝을 지어 쌍거쌍래 날아들어» (구인환 2002: 17)

몇몇 표현은 한문어휘를 병기하고, <사은숙배>, <치행차려> 등은 한글로 발음을 명기하였을 뿐이다. <사방에 일이 없고, 방곡의 백성들은 더디 옴을 칭원한다>의 경우, 한자어휘 병기도 없고 번역이 되지도 않아 뜻이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한자를 읽지 못해 현대 한국어로 읽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식의 부분적인 번역은 텍스트 접근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은 시 120편을 모아 정민이 한글판본과 해제를 작성한 『한밤중에 잠깨어』 시집(2012)은 표지에 «정약용 짓고 정민 풀어 읽음»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20여년을 최고의 관직에 있던 다산이 “신유박해”때 유배되어 18년을 보내면서 겪은 심정을 적은 한시집이다. 갑자기 부귀영화를 잃고 가족과 떨어져 유배 온 다산의 시는 초기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지만 이어 내면의 변화를 겪고 달관과 침잠의 세계가 펼쳐지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농민들의 무사태평한 삶을 부러워하며 가족을 그리워한다. 시에 따라 중국문학, 문인, 역사에 대한 상호텍스트가 많다. 원전과 한글판본, 해제본으로 구성된 텍스트는 일반 번역 텍스트보다 훨씬 밀접한 상호텍스트 성으로 묶여 있다. 다르게 말하면 번역본은 독립적인 상태로 읽힐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민이 한글본과 해제본의 저자라는 점을 명시함과 동시에 한시원본과 해제본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 텍스트의 구성을 살펴보자. 사진 1은 한글 번역본(정민 2012), 한자원문(정약용), 사진2는 한글시를 보완하는 산문형태의 설명문과 해제(정민)이다. 248쪽의 <각몽>이란 시의 구성을 그림 1과 2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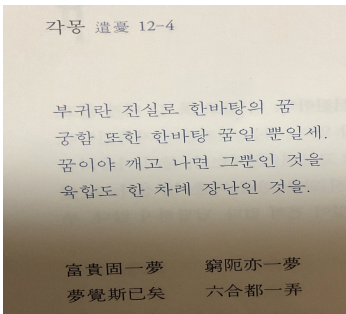


그림 1. 각몽 한글번역본과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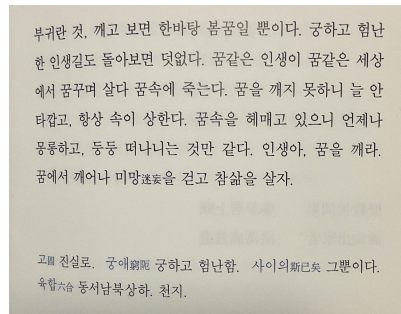


그림 2. 시 설명문과 해제

www.kci.go.kr

해제부분에 시의 일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또 저자의 감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육합과 같이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글세대에게 이해가 어려운 ‘육합’의 경우 동서남북상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나 정확한 뜻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이 번역에 해제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번역자체가 원본에서 독립한 의미구조체, 독립적인 하이퍼텍스트가 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문을 읽지 못하는 독자를 위해, 번역문이 원문을 완전히 대체하여, 의미는 동일하지만 언어가 교체된 하이퍼텍스트를 생산하는 작업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고전번역은 일종의 해제의 작업인 것이다. 번역이 번역자의 인지적 지식과 언어지식을 동원한 해석을 거쳐 1개의 확정된 본을 생산하는 작업이라는 기본전제와 어긋난다. 한글, 한문병기, 해제, 즉 뜻을 확정하지 않은 텍스트 상태로 원문텍스트에 대한 메타텍스트를 병렬로 제안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전문연구자와 일반 독자를 모두 겨냥한 작업이라는 인상을 준다. 풍부한 문화, 문학적 인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해제를 곁들인 판본은 학습자나 전문가에게는 꼭 필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에게는 직관적이지 못한 접근이며, 그 결과 고전의 현대어 번역 중 가독성이 높은 번역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문 연구자를 위한 판본과 일반 독자들을 위한 번역으로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이 프랑스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었다.

Après un rêvê

La gloire n'est qu'un instant de rêvê,

le dénuement certainement aussi.

Les rêvê prennent fin quand on s'éveille.

Le destin que nous assignent les six points cardinaux

n'est, lui aussi, qu'un jeu éphémère. (*Réveillé au milieu de la nuit*, p.90)

한글번역본을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한 번역본은 <육합>이라는 상호텍스트를 주로 처리하지 않고 프랑스로에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points cardinaux>로 처리하였다.

이런 부분은 스테판 브아(2017)의 『호질』 번역 서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www.kci.go.kr

『이조한문단편집』(1973)을 사용했음을 밝히며, 한문고전들이 필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본들이 발생하기도 하여 고전마다 다양한 변형텍스트가 있음을 언급한다. 그 결과 번역 역시 이런 오랜 전통의 변형이라고 본다. 번역이 하나의 원천 텍스트에서 파생한 여러 개의 변형이며,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성이 높은 해설을 포함하여 완성이 된다고 평한다. 또 그가 사용한 번역문 텍스트 역시 한문과 한글이 병용된 판본이라고 지적한다. 또 한글번역본이 모호하다는 점을 프랑스어 번역문에서 지적하기도 한다.

한문학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는 이런 텍스트의 복합성으로 인해 고전텍스트 독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또한 다의성이 가득한, 완결본이 아닌 현대어문을 출발어로 삼아 외국어방향으로 번역을 진행하는 번역자들은 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해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럼 이제부터 프랑스어 번역현황을 살펴보고 이런 번역관이 고전 문학의 외국어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프랑스어 번역현황

고전의 프랑스어 번역의 경우, 다른 언어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작품만이 번역되었다. 한국 현대문학이 프랑스어로 특히 활발하게 번역된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전번역은 분명히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진명(2008)은 프랑스에서 한국학의 전통이 짧은 문제와 더불어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번역자의 부족을 주원인으로 지적한다 :

“한문이나 옛 한글체로 쓰인 고전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한국 고전의 번역, 출판과 소개는 황무지나 다름없다”(이진명 2008: 104)

전문번역가의 부족을 무엇보다도 주목할 수 있다. 한문과 프랑스어를 섭렵하고 양국의 문학과 문화를 잘 아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진명은 과거 프랑스 동양어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프랑스인들이 주로 역사·지리 분야의 서적을 번역해왔다면 “현대에 와서는 소설류의 한글 고전들이 주로 번역되고, 번역 담당 주체는 한국인들이며, 불문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대개는 프랑스인과

짜을 지어 번역을 한다. 이들은 한문을 배우지 않은 세대이다.” 2000년 이후 활발히 번역에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번역가들은 한글세대로 이들 세대에 게 한지는 영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의 외국어라는 점이다. 한국의 고전작품이 프랑스어로 출판이 저조한 이유에는 물론 상기 언급된 번역인력의 문제 외에도 독자의 수용성, 프랑스 출판시장의 구조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의 고전작품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현황을 살펴보고 번역과정과 과제를 분석해보기로 하자.

한국문학번역원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1892년 처음으로 외국어로 번역된 『춘향전』을 포함, 2023년까지 총 589권이 번역, 출판이 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분류에 따르면 이중 37권이 고전작품이나 대부분 전래동화 등 모음집으로 엄밀한 의미의 고전문학작품은 총15권이다.

표 1. 한불고전번역목록

	원제	제목	저자	번역가	출판사	출판연도
1	춘향전	Le printemps parfumé	미상	Hong Tjyong-Ou/ J.H.Rosny	E. Dentu	1892
2	십청전	Le bois sec fleuri	미상	Hong-Tjyong-Ou	Paris Leroux	1895
3	박씨전	Histoire de Dame Pak	미상	Marc Orange/Ogg Lee	L'Asiathè-que	1982
4	홍길동전	L'histoire de Hong Kiltong	허균	Patrick Maurus	Gallimard	1994
5	미상	Tigre et autres contes de Corée	미상	Li Jin-Mieung/ Maurice Coyaud	Gallimard	1995
5	한중록	Hyegyeonggung Hongssi : Mémoire d'une reine de Corée	혜경궁 홍씨	Claude Bouygue	Philippe Picquier	1998
6	열녀춘향 수절가	Le chant de la fidèle Chunhyang	미상	Choi Mikyung/ Jean-Noël Juttet	Zulma	1999
7	구운몽	Le songe des neuf nuages	김만중	John et Geneviève T. Park	Maisonneu-ve & Larose	2000
8	시집	Le saule aux mille rameaux	시집	Ok-sung Ann-Baron/ Jean-François Baron	Asiathèque	2004

9	변강쇠	Histoire de Byon Gangsoé	미상	Choi Mikyung/ Jean-Noël Juttet	Zulma	2009
10	수궁가	Sugungga	미상	Han Yumi/Hervé Péjaudier	Imago	2012
11	숙향전	Histoire de Sukhyang Dame vertueuse	미상	Han Yumi/Hervé Péjaudier	Imago	2017
12	호질	La remontrance du tigre	박지원	Cho Eun-ra/ Stéphane Bois	Decrescen-zo éditeurs	2017
13	한밤중에 잠깨어	Réveillé au milieu de la nuit	정약용	Choi Mikyung// Jean-Noël Juttet	Imago	2018
14	금오신화	Histoire merveilleuse du mont Geumo	김시습	Choi Ae-young/ Jean-Bellemin Noël	Imago	2019
15	창선감의	Une histoire fort morale	미상	Choi Ae-young/Jean-Bel lemin Noël	Imago	2020

이진명의 분석대로,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한/불 번역가/감수자의 협업 번역으로 고전작품이 번역되었다. 전체 언어권에서 고전의 외국어 번역현황을 보기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의 통계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문학작품의 해외소개는 2002년 한일월드컵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활성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 즈음에 정점을 찍고 K-팝과 BTS, 한국영화의 덕분에 양적팽창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강, 황석영 등 해외 문학수상 등으로 질적 팽창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통계에서 고전문학이 차지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한불고전 번역통계

	Korean Literature, contemporary fiction and contemporary poetry	Classics	Proportion
2002	147	12	8%
2005	486	20	4%
2019	264	9	3.4%

보다시피, 주요한 행사가 있었던 2개의 연도와 가장 최근인 2019년의 통계에서 한국문학의 전체 해외 번역량에서 고전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한국문학번역원과 더불어 외국어방향 문학번역을 지원하는 대산문화재단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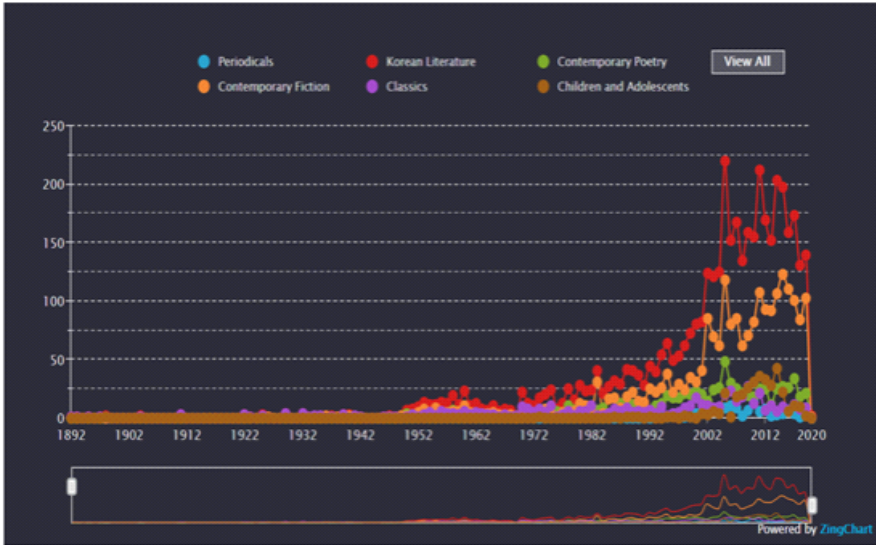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주요 번역장르 현황¹⁾

우 생존작가의 현대작품 중심으로 번역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 현재까지 두 작품만이 지원되었다.

이런 현황은 고전번역의 고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착어권 독자들의 한국고전작품에 대한 수용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번역이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이어야 하는데, 번역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번역텍스트의 재표현 생산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주네트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4. 고전번역 과정의 문제점

4.1. 원문이해과정

고전작품 번역의 경우, 현재 주로 번역에 종사하는 인력은 언급한 바와 같이

1) <https://library.ltkorea.or.kr/statistic/tab2> (2021.2.22. 검색)

현대한국어로 번역된 고전을 출발어 텍스트로 작업을 한다. 사실상 중역작업을 수행하는 셈이며 원문이 아닌 번역텍스트를 원천텍스트로 번역작업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중역에 대한 정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앙드레(J. St. André)가 작성한 라우트리지 번역학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electronic resource] / Third edition)의 relay translation 항목은 중역을 재번역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직접 번역이 어려운 언어쌍간에 문화와 지식전달을 위해 채택되는 방식으로 19-20세기 초에 동북아에서도 많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고전작품의 외국어 번역과정에서 한국어 번역본은 대표적인 릴레이 번역, 즉 중역을 위한 원천 텍스트이다.

연구자에 따라 한문원문을 “한문원전”, 한국어 번역본을 “원천텍스트”, 번역된 텍스트를 “목표텍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권병철 2017).

그럼 구체적으로 고전작품의 현대국어 번역 예를 분석하여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4.1.1. 원천 텍스트가 불충분하게 번역된 경우

- 한자어휘를 한글로 표기 : 고전번역의 현대 한국어 번역을 주도해온 많은 한문학자들은 한자를 병기해오거나 최근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정약용의 『한밤중에 잠깨어』의 현대문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기로 하자.

«천하에 모든 책 다 읽고 나서

마침내 『주역』으로 토하려 했지

盡茹天下書 意欲吐周易》 (배려遭夏 12-2) (244)

«토»의 경우 한자를 한글로 표기해주는데 그쳤는데 뜻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한자를 오랫동안 공유해온 탓에, 국어학자가 번역을 하는 경우, 한자어휘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번역을 읽을 대상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듯하다. 일반적인 번역에서는 외국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문을 번역하는 경우 흔하다. 또는 원문의 한자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시도일 수도 있다.

사실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한문어휘를 고수하는 방식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크다. 한 일간지 기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한자 덧붙이기보다 풀이말 달아야 이해하기 쉬워»라는 박물관속 우리말에

www.kci.go.kr

대한 기사를 보자

«①통일신라시대에는 삼국 불상의 특징이 조화를 이룬 불상을 만드는 한편, 인도 굽타Gupta 시대 불상양식의 영향을 받은 중국 성당양식盛唐樣式이 도입 되어 8세기에는 석굴암 불교조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불교 조각사상 절정의 불상을 만들어냈습니다 (2020-11-16 한겨레)».

글쓴이는 ‘성당양식’은 전문용어라 한자보다는 뜻풀이가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았다 :

«※성당 양식: 중국 당나라를 초당, 성당, 중당, 만당 네시기로 나누는데, 그중 두 번째 시기인 성당 시대에 유행한 불상 양식»

한자혼용을 해오던 많은 학술, 미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는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4.1.2. 한자를 한자로 치환한 번역

원문에 있는 한자의 표현을 다른 한자로 치환하여 이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번역도 있다. 고전번역원에서 시행한 한 번역의 예를 보자.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의 농암집, 제1권 시, 여름에 즉흥으로 읊다를 살펴보도록 하자.

산들바람 이따금 불어와서는 / 好風有時至
책상 위의 책장을 걷어 넘긴다 / 卷我床上書
이 신세 그런대로 즐겁고말고 / 遇此且欣然
옛사람들 오할하다 어찌말하리 / 何言古人疎²⁾

전체적으로 비교적 한글로 편안하게 잘 번역이 되었다. 마지막 시구에 오할 하다라는 표현은 현대 한국어에서 그리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 독자는 이해가 어렵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오할하다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

3)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435A&solrQ=query%EB%86%8D%EC%95%94\\$solr_sortField%80%A0\\$solr_sortOrder%80%A0\\$solr_secId%80%A0BT_SJ\\$solr_toalCount%80%A01\\$solr_curPos%80%A00\\$solr_solrId%80%A0SJ_ITKC_BT_0435A](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435A&solrQ=query%EB%86%8D%EC%95%94$solr_sortField%80%A0$solr_sortOrder%80%A0$solr_secId%80%A0BT_SJ$solr_toalCount%80%A01$solr_curPos%80%A00$solr_solrId%80%A0SJ_ITKC_BT_0435A)

1. 곧바르지 아니하고 에돌아서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2.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다.
3. 주의가 부족하다.

그러나 세 가지가 모두 구체적으로 뜻이 와 닿지 않는다. 중국문학 전문번역가³⁾에게 자문을 구하니, «영성하다»의 뜻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한다. 즉 나처럼 여름날에 옛사람들도 이런 여유자적함을 느꼈을 것이며, 내가 책을 벗하고 누워 있는 것은 옛사람들이 글을 남겨주었기 때문이라는 뜻을 포함하여, “이처럼 즐거움을 누리고 보니/옛사람들을 어찌 영성하다 하리오.”라고 제안해 주었다. 어려운 표현으로 우회해서 번역을 하는 방식은 일반 독자의 가독성을 위한 배려는 아니다. <疎>자를 풀어쓰기 어려우니 더 어려운 표현으로 치환하여 이해가 어렵게 된 경우이다.

유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정약용(2012)의 『한밤중에 잠깨어』중 «나그네 회포»시 한구의 번역을 보자.

«땅의 장기(瘴氣) 때문에 겨울 옷 외려 얇고(衣緣地瘴冬還減)»

이 번역은 장기라는 한자를 첨부하여 이해가 어려우며, 특히 땅에서 장기가 올라오는데 «겨울 옷 외려 얇고»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다. 한자를 모르는 번역자는 이해를 위해 일일이 부수와 획을 확인하는 작업이 더디고 다의성을 갖는 한자의 어떤 뜻이 해당 작품에 맞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자 어휘를 어색하게 직역으로 전달해서 정확한 뜻의 이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번역방식은 한자의 다의성으로 인해 문맥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인하다. 이것은 함축적인 한시의 고유한 특성에서도 비롯된다. 그러나 다의성은 모든 언어의 특성이며, 문맥 등의 요소가 의미를 확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주탁(2012)은 공무도하가의 한글번역이 4개 판본이 존재하나 한문학자들끼리의 해석이 분분하여 영어 번역자가 다양한 판본을 비교하여 한글본의 의미불확실성을 극복한 예를 제시하며 가능하면 한문 원전에서 직접 번역하여 중역과정에서의 오류를 피할 것을 강조한다. 황조가 영역본의 경우, “**羸羸**”의 표현이

3) 강영매 겸임교수 (이화여대통역번역대학원)

“beating their wings”로 번역되어 “훨훨난다” 등의 여러 한국어본 번역보다 빠른 날개 짓을 더 잘 표현했다고 평가한다. 불충분하거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현대 한국어로 충분히 변환해주지 못한 번역 때문에 외국어 번역자는 중역의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외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을 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지금까지 몇 예를 통해 고전문학작품이 한문원문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독립적이지 못한 번역을 생산하며, 원문을 대체하는 하나의 하이퍼텍스트를 도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해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해보았다.

5. 재표현방식

5.1. 도착어법의 존중

이해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재표현 과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어순을 따라 나열하는 방식으로 원문에 대한 메타텍스트를 생산하는 경우,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된다. 특히 고전시의 경우, 술어가 없이 명사형으로 나열한 경우, 주/술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외국어 독자들이 이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조재룡(2013)이 예로 든 흥미있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프랑스에서 한국학의 서지를 작성한 모리스 쿠랑이 1876년 박효관과 안민영의 가곡원류(歌曲源流)를 번역한 것에 대해, 시조의 형태가 존중되지 못한 번역이라고 조재룡은 지적을 한다.

春風和煦好時節에 범나비 몸이되어 百花叢裡에 番氣젓어 노닐거니 세상에 이
런 豪興을 무엇으로 만들소냐

Au temps où le vent printanier est tiède,
je veux me transformer en papillon tigre,
je veux rechercher les parfums de toutes les fleurs :
il n'est au monde rien de comparable à ces délices.

조재룡은 더 간결한 시조의 형태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www.kci.go.kr

Au temps du vent printanier,
transformé en papillon tigre
Plongé dans le parfum de toutes les fleurs
En ce monde, de quoi pourrait-on faire ce genre de délices.

조재룡의 번역은 한자의 어순을 따라 한글로 대응번역을 하는 한문학자들의 것을 답습한 번역방식이다. 2번째 쇠구부터 주술구조가 성립이 되지 않아 수식 어들이 어떤 단어를 수식하는지 알 수가 없는 모호한 번역이다. 모리스 쿠랑은 프랑스인 독자를 대상으로 원문형태와 도착어의 관습사이의 타협으로 더 산문적인 구문을 통해 번역을 제안한 듯하다. 프랑스어 시에서는 주어 없는 문장의 경우, 주술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 조재룡 번역은 2,3구절이 모두 수식구이며, *transformé*와 *Plongé*는 마지막 쇠구의 주어를 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는 주어 없이 인지적인 이해가 어렵다.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문학작품의 번역 방식관련, 빌테르(J-F Billeter)가 프랑수아 줄리앙에 반하여(*Contre François Jullien*)에서 제기한 번역논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빌테르는 프랑스의 저명한 한문학자 줄리앙이 한자의 다의성, 문맥 내에서의 의미를 무시하고 항상 고정된 대응표현으로 대치한 번역으로 말미암아 중국고전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전형적인 텍스트를 생산해왔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예가 도(道)로 이 한자는 문맥에 무관하게 줄리앙에 의해 *Tao*로 번역이 되어왔다. 줄리앙 방식의 번역을 본받아 중국의 저작과 문학작품에서 이미 정해진 대응어를 대입하는 방식은 중국의 사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이런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단위가 더 이상 단어가 아닌 문장이 되어야 하며, 문맥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번역하라고 주문한다. 직역으로 언어적 표현의 형태만 전달한 경우 전체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시의 생명인 이미지도 잘 표현되지 않는다.

고전번역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대표적인 프랑스의 고전번역자 폴 벤(Paul Veyne 2016)은 언어적 친연성을 가진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아이네이스(*Aeneis*)를 번역하면서 재표현의 방식에 대해 서문에서 이렇게 밝힌다. 운문을 산문으로 번역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라틴어에서 파생된 어려운 프랑스어 어휘가 아닌, 현대의 자연스러운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라틴어의 어순이 아닌 프랑스어의 어순을 존중하는 입장을 선택하였음을 밝혔다. 난해한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작가인 베르길리우스를 배반하는 번역이 되었을 것이고, 라틴어

적 특성과 작가의 문체를 잘 구분해서 원어에서 진부한 것은 번역어에서도 진부하게 번역이 되어야한다고 제안한다. 격이 있어서 이동이 자유로운 라틴어와 사용위치에 따라 품사성분이 결정되는 프랑스어의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명번역을 한 번역자의 제안은 한국고전문학의 번역에 적용하기에 유효해 보인다. 폴 베인의 관점에서 쿠랑의 번역을 살펴보면 시인을 1인칭으로 하여 시구의 간결미를 살리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재구성, 다시쓰기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명한 시인이며 캐세이(Cathay) 등의 고전한시를 번역한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가 말한 번역의 세 가지 기능, 독서, 비평 및 시적인 재생산의 원칙을 새겨보면 한국고전작품의 번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Michael 1997). 그는 출발어의 이국성을 존중하지만 도착어에서의 시적인 이미지가 재생산되는 번역을 옹호했다. 한국고전번역의 경우에도, 일정한 패턴을 지닌 정형적 고전문체를 구현하거나 언어적인 모사번역에 그치지 말고 인지적, 감성적 의미를 시적으로 재생산하도록 시도한다면 릴레이 번역으로서 전달의 역할이 더욱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5.1.2. 다양한 상호텍스트의 처리

재표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국고전의 특성 중에는 “상호텍스트성”의 문제가 있다. 중국역사의 지명, 인명 등이 많이 등장하므로 본문 내에서 가능한 상호텍스트임을 표시하여 독자가 원문이 없이도 서사를 잘 이해하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번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각주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스테판 브와는 『호질』(*La remontrance du tigre*) 번역 서문에서 역주, 인용 등이 필요한 고전작품의 재표현을 위한 장치들에 대해 본문텍스트에 과한 역자주를 피하기 위해서 3가지 차원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짧은 경우에는 따옴표사이에 넣던가, 자주 사용되지 않은 용어인 경우 각주를 통해 더 설명을 참가하고, 종종 등장하는 중국이나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표현의 경우 작품의 뒷부분에 부록을 통해 자세히 소개했다고 한다. 이 원칙이 적용되어 처리된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L'hôte jouait de la cithare *geomungo* et deux invités l'écoutaient dans le plus grand silence. (*Remontrance du tigre*, p.80)

www.kci.go.kr

거문고의 번역어로 *cithare*를 적고 바로 뒤이어 이탤릭체로 적어 단순한 서양 악기 *cithare*가 아님을 표시하였다. 이 번역의 경우 필요시 각주를 사용했고, 뒷 부분에 20페이지에 이르는 주요 문화, 역사적 단어나 표현에 대한 용어사전이 첨부되어있다.

일부 한불고전번역의 경우 일반단어에 대해서도 각주 또는 미주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 경우도 있다. 『구운몽(*Le songe des neuf nuages*)』의 예를 살펴 보자.

《천하에 명산이 다섯이 있으니 동쪽은 동악 태산이요[...]》으로 시작되는 도입부에 대해 번역문은 :

Au-dessous du ciel² se dressent cinq montagnes de grand renom : Taisan, le Grand Mont à l'Est [...]. (p.11)

《천하에》라는 단어에 대해 미주를 포함이 되었다. 미주는 다음과 같다 :

2. Cheonha, "sous le ciel" signifie en Chine. Selon les anciens Chinois, la terre est carrée et le ciel rond comme un dais. L'univers est régi par le Seigneur d'En-Haut dont le palais est sis au neuvième ciel.

미주에 한자 《천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국인들의 천문세계 인식에 대한 설명까지도 포함이 되어있다. 하늘 밑의 땅은 사각이고 하늘이 있는 하늘은 둥글다 등의 설명이 있다. 이 번역의 경우 미주가 242-290쪽에 이르며 고유 명사나 역사 문화적 상호텍스트 외에도 일반단어까지 해제가 포함이 되어있다. 이런 번역방식은 한문에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번역을 해제의 형태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위에서 인용한 다산의 시에서, <주역>, <육합> 등의 표현의 경우, 단순히 단어를 치환하는 수준의 재표현으로는 이해가 어렵다. 동양사상과 깊이 연관이 있는 이 두 단어의 경우 시집에서 학술번역처럼 주와 해제를 길게 첨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단어가 나오는 정약용의 한시 《배려》의 예를 볼 수 있다. <주역>을 프랑스어에서 서적명을 의미하는 이탤릭으로 표시하여 인용임을 명시한 것을 볼 수 있다.

Prévenance

Ayant lu tous les livres de ce monde,
J'ai voulu maîtriser le *Livre des Mutations*.
Le Ciel a bien compris mon objectif :
Il m'a ménagé trois années d'exil.
(*Réveillé au milieu de la nuit*, 2018) p.89

이탤릭체를 선택하여 <주역>이 서적임을 표시하였다. 『주역』이 원천 텍스트의 문화권에서 잘 알려진 서적인 만큼 일차독자를 위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다. 그러나 2차 독자인 비한국어권 독자들을 위해서는 이 단어가 서적명이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표시가 필요하다.

중국문헌이나 문학작품에 대한 상호텍스트성이 인용된 작품의 경우, 이미 번역이 존재해도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는 『열녀춘향수절가』에 인용된 백거이의 <장한가>의 일부이다. 이 시의 경우 이미 프랑스로 번역이 있으나 번역가들이 새로 번역을 하면서 이 시의 출처를 미주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Un vent funeste soulève des tourbillons de sable ;
Dans la palê clarté du jour, les bannières ont perdu leur éclat⁸ (p.78)

黃埃散漫風蕭索 (누런 흙먼지 일고 바람 쓸쓸히 부는데
旌旗無光日色薄 (어기(御旗)는 빛을 잃고 햇빛도 희미하다)

번역자들은 미주를 통해 백거이가 쓴 시로 현종과 양귀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시라는 정보를 추가했다. 춘향이 이도령이 서울로 떠난 뒤 느끼는 슬픔을 대변하는 이 시는 이런 추가 정보가 없이는 상호텍스트성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8. Citation du Chant des regrets éternels, célèbre poème de Bo Juyi(772-846), qui évoque les amours tragiques de l'empereur Xuan Zong et de sa concubine Yang Guifei. (158, *Le Chant de la fidèle Chunhyang*, 1999, Zulma)

『열녀춘향수절가』와 동일한 장르인 『수궁가(Sugungga, *Le dit du palais sous les*

www.kci.go.kr

mers 2012)의 경우 미주가 87-138쪽이 되며 피리와 같은 약기의 설명뿐만 아니라 나졸과 같은 고어 보통명사 설명도 포함되어있다, 삼복, 오계탕, 동의보감 등의 단어는 미주를 통해 내용각주, 참조각주를 활용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번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일종의 프랑스어 해제본을 제안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상호텍스트가 다수 포함되는 유사한 방식으로 번역이 출판된 대표적인 경우는 『녹양이 천만사인들(Le saule aux dix mille rameaux 2005)』일 것이다. 중-한-프이중어 번역이라고 표지에 밝힌 이 시집의 번역의 한 예를 살펴보자. 잘 알려진 처용가의 경우 다음과 같이 텍스트가 배열되었다. 한문원문, 한글 해석은 물론 한자의 발음을 병기하였고 프랑스어 번역본을 제시하면서 처용에 얽힌 이야기를 설명하고 출처가 삼국유사임을 밝힌다. 양주동의 현대어 번역본을 번역했음을 밝히고 이어서 상호텍스트로서 앙드레 파브르(André Fabre)의 번역본, 조동일과 다니엘 부세(Daniel Bouchez)의 번역본을 첨부해 독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시집은 유네스코 에디션으로 번역의 목적 자체가 인류의 중요한 자산인 문학작품을 보존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목표에 부합하게 번역역시 원문텍스트와 현대한국어와 프랑스어의 번역본을 병렬텍스트로 제시하여 문화유산 구축으로서의 번역작업의 면모를 보여준다.

상호텍스트를 번역문에 처리하는 방식관련, 본문에 스며드는 방식에서부터 번역외부적 텍스트인 병렬텍스트로서의 번역본의 삽입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번역가들이 목표로 하는 번역서의 입지와 대상 독자에 따라 복합적 양상을 띠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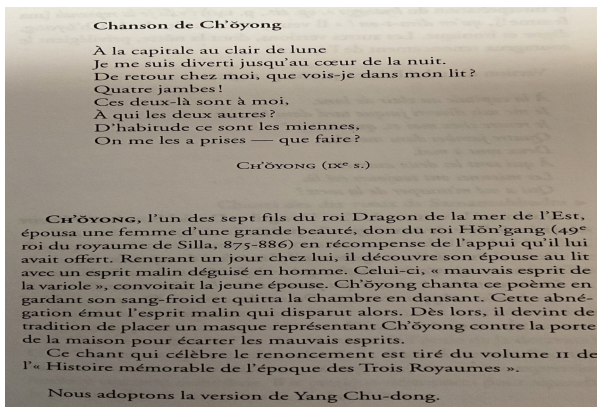


그림 4. 처용가번역문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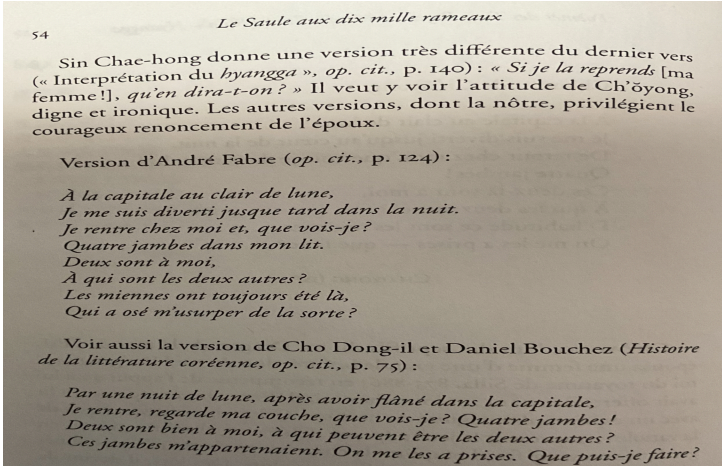


그림 5. 처용가 앙드레 파브르, 조동일 다니엘 부세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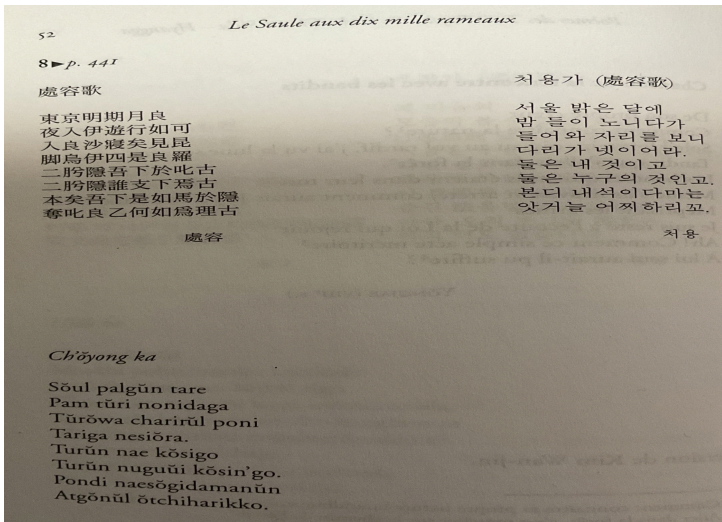


그림 6. 한문원문 및 양주동 현대한국어 번역문

5.1.3. 결텍스트(paratext)

본문에서 많은 각주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저자 관련 정보, 작품생산에 관련된 정보인 결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다. 고전작품의 경우, 역자 서문, 후기 등에서 작가와 작품설명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번역된 소설에서 역자 서문이나 후기 등의 곁텍스트를 선호하지 않는 문화이나 고전작품의 경우, 문화, 역사적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정을 한다. 곁텍스트야말로 본문 내에 배경이나 맥락의 설명을 지나치게 삽입하지 않으면서 함축적이며 시적인 재표현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고전작품의 경우 연암처럼 작가가 직접 곁텍스트를 배치하여 원독자의 이해를 돕는 경우도 있다. 권병철(2017)에 따르면 『양반전』의 경우, 원문에 연암의메시지가 응축된 중요한 정보가 곁텍스트로 포함되어 있다. 번역과정에서 작가의 곁텍스트 외에도 번역자가 제공한 부가적인 곁텍스트는 목표텍스트 독자들의 정확하고 수월한 텍스트 읽기와 동시에 연암이 독자들을 이끌고 가려했던 그 목적지로 목표텍스트 독자들을 안내하기 위한 전략적인 유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서문과 같은 곁텍스트는 거의 모든 고전번역에 포함이 되어있다. 『한밤중에 잠 깨어(2018)』 프랑스어 번역의 경우 번역자들은 서문에서 중국시가의 영향을 받아 정형적인 한국의 고전한시의 다의성을 극히 분석적인 프랑스로 번역할 때 겪는 어려움과 한시의 환기력과 시의 서사성을 동시에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밝힌바 있다. 한시는 논리적으로 읽기보다는 그림처럼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기법이 있기 때문이다. 다산 시집이 창작된 배경과 더불어 텍스트의 특성 그리고 번역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한 경우이다.

고전작품 텍스트의 복잡성으로 인해 텍스트의 결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텍스트 내에 또는 외부에서 텍스트의 구성을 돕는 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해보았다.

6. 결론

한국 고전문학 번역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 이미 몇 연구자들이 고전이해의 어려움, 전문 번역인력의 부족함 및 해외출판의 어려움을 지적해온 바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무엇보다도 정확한 한국어 현대어본 부족현상이 번역의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전문학이 해외에 소개되기 위해 거치는 번역의 경로를 상호텍스트의 관계로 조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전체가 한문이거나, 한문어휘가 많은 고전의 현대 한국어 번역은 원

본에서 독립된 텍스트의 생산을 이루지 못하며, 도착어 텍스트는 출발어 텍스트에 의존적인 메타텍스트 또는 결텍스트의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로 고전을 번역한 여러 번역자들이 밝힌 바처럼 현대어 고전텍스트의 복합적 상호텍스트성은 외국어로의 번역을 시행할 때 난제이며, 번역자들은 상호텍스트 제공 및 도착어의 언어, 문학적 표현의 등가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번역자들 역시 결텍스트를 통해 원문과 저자의 사회, 정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특히 많은 원문이 인용된 중국어 고전들과의 상호텍스트 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우려 했다.

“번역대상인 고전서사문학들은 비록 현대에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깊은 문제의식이라든가 주제 의식,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의 함의와 중의성, 다른 고전 문헌에서 차용한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결텍스트가 필요함을 정선희는 데이비드 맥캔(David McCann)의 김소월 시번역에 덧붙여진 긴 서문에서 역설하였다(정선희 2013: 180).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문학작품에서 결텍스트의 사용은 번역이 일반인을 위한 고전작품의 보급용인지, 대학 및 전문연구자들을 위한 문헌적 작품인지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비용으로 인한 이해와 재표현의 문제에 대해,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교수는 “고전번역에서 한문문학과 한글문학이라는 문제”라는 발표(2016)에서 한국의 고전문학이 더 많이 알려지고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잘 알려진 한국작가들이 더 친숙하고 더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 고전문학 다시 쓰기 ; 2) 한국 고전의 외국어 번역에 있어 적절한 문체를 정하기 (언어마다 맞는 특정한 문체가 있다)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의 고전이 메타텍스트의 위상으로 번역이 되는 현상을 개선, 독립적인 문학텍스트, 즉 원문과 분리되어 읽힐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의 위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원문 한자본과 한글본이 같이 병기된 상태로 출판되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점점 한글세대가 증가하고, 한문이 외국어문자라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면 한글로 독립적으로 읽힐 수 있는 판본이 더욱 등장할 것이다. 이미 어린이용 개작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이다. 여기에서 한국고전 번역의 방식을 서구에서 그리스, 로마 문학작품을 번역해오던 방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리스, 로마 고전문학작품은 프랑스의 경우 <사어>교육의 일환으로 번역수업의 원형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원본과 번역본의 이중언어본이 출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언어본의 경우 원본과 대조해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번역자는 직역을 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어 고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전문 번역가 폴 마종(Paul Mazon 1982)은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전집 재번역 서문에서 그리스원본 읽기를 돕기 위해 각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문체의 우아함을 희생했는데, 엄격한 의미의 전달이 오히려 가독성이 없는 번역을 생산했고, 그래서 의미와 우아함 사이에 타협을 하려다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번역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더 자유스런 번역이 오히려 작품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텍스트의 시적가치를 잘 표현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이 번역을 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고전도 1차적으로 현대화 과정에서 문인에 의한 번역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의 고전 번역 방식과 비교해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고전의 경우에도 중세나 르네상스 작품의 경우 현대어 역에서 해제 등이 포함되고 원본과 번역본, 해제본이 같이 출판되는 경우가 있다. 해제와 설명, 주 등의 텍스트는 원문을 더욱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번역에 해제가 포함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불충분한 해제, 또는 해제가 없이는 텍스트를 이해할 수 없는, 독립적 텍스트로 존재할 수 없는 번역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끼리 읽기 위한 현대어 번역이어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작업의 중추의 역할을 하는 고전번역원에서 현대어 번역작업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도⁴⁾가 진행 중이다. 정확한 한글번역본을 한국어 독자 또는 외국어 번역가에게 제공해주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인간번역자의 번역속도가 너무 느려서 고문헌 번역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AI 자동번역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번역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고전문학을 번역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으며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실록 등의 글에서 일정한 패턴이 재사용되는 부분이 있어도 실록의 내용

4) 고전문학번역원의 누리집에 팝업으로 다음 글이 명시되어있다.

<https://www.itkc.or.kr/bbs/boardView.do?id=80&bldx=33252&page=1&menuId=101&bc=0>

한문고전 자동번역(시험판) 서비스는 인공지능경망 기반의 자동번역기술(NMT)을 적용하여 ‘승정원일기’ 원문과 ‘천문고전’ 원문을 대상으로 자동번역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으로 2017년 5월부터 3개년 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로 승정원일기 원문 외 천문고전 원문에 대한 자동번역서비스도 개발하여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한문고전 자동번역(시험판)”의 자동번역결과는 문자적 난이도가 높은 한문의 특성과 기계학습 데이터의 부족으로 번역품질이 완벽하지 않으며,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 외의 다른 고전원문에 대한 자동번역의 정확도는 현저히 저하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충분한 기계학습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의 자동번역 성능향상은 물론 다른 고전문헌에 대한 자동번역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www.kci.go.kr

은 매일 발생한 일들일 것이므로 기계로 자연스럽게 번역이 될 수가 없다. 한자 등의 용어나 표현의 전환을 돕는 도구로의 활용, 일종의 CAT Tool로서의 활용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번역에서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사실은 패턴을 학습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AI통번역의 연구가 활발한 중국에서도 한자의 다의성으로 인한 오역율이 높으며 인공지능경망으로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번역자는 직감적으로 적확하며, 미학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만, 기계는 주입된 데이터가 없이는 해결하지 못한다. 고전문학은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예술작품으로 읽힐 수 있는 번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자동번역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번역의 경우 어떻게 외국어로 번역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 전성운(2016: 140)은 “선정된 작품의 텍스트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고전 전문연구가와 외국어 번역자가 팀을 이루어” 이해와 표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기획한 영문 고전의 영문번역 시리즈가 직역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외국인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번역을 통해 고전작품의 문예미, 표현미를 확보하여 가독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하며, 고전문학에 허다하게 등장하는 삽입시나 특정 장면에 대한 문예적 묘사 등과 같은 경우 작품의 특징에 따라 번역의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권한다. 이해력과 가독성 확보를 위해 팀내에서 단계적 번역을 진행, 검토하여야 하고 이런 작업은 “한국 고전문학이 인류보편의 지향 가치를 내장(內藏)하고”있어 세계와 공유할 가치가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언어능력을 갖춘 젊은 번역가들이 고전문학에 번역에 투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해외 출판진흥을 위한 노력도 동반됨과 동시에 고전번역의 특수성을 연구, 번역자들을 돕기 위한 번역방식논의, 독자 지향적 독립적 텍스트의 생산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문문학이 현대국어 번역을 거쳐 중역으로 해외에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 문화적,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혜경. (2003). 「고전번역의 조건」, 『중국어문학지』 13: 187-207.
- 권병철. (2017). 「양반전 英譯과 고전문학 번역모형」. 『고전번역연구』 8: 413-430.
- 권병철. (2017). 「양반전 영역에서 결텍스트 전개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22:3 9-53.
- 구인환. (2002). 『춘향전』 신한문화사.
- 박지원. (2019). 『호질 (*La remontrance du tigre*)』, (S. Bois and E. Cho, trans) Decrescenzo éditeur.
- 윤선경. (2014). 「고전문학 번역에 나타난 번역의 은유」. 『외국문학연구』 54: 113-133.
- 임주탁. (2012). 「한국고전시가의 영어 번역의 양상과 문제점」, 『우리어문연구』 44: 209-242.
- 임주탁. (2014). 「번역 유형별 번역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고시가 번역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67: 45-73.
- 조재룡. (2013). “Les premiers textes poétiques coréens traduits en français à l’époque de l’ouverture au monde”, 『통번역학연구』 17(4): 179-196.
- 전성운. (2016). 「한국고전문학의 세계화 방안」. 『어문연구』 87: 113-142.
- 정선희. (2013). 「한국고전서사문학의 번역과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 모색」. 『한국고전연구』 28:157-182.
- 정약용. (2018). 『한밤중에 잠깨어 (2012), 정민편집』 *Réveillé au milieu de la nuit*, (M. Choi, and J. N.Juttet, Trans., Imago.
- 조동일. (2008). 『한국학 고전자료의 해외 번역 : 현황과 과제』, 계명대학교출판부.
- Baker, Mona & Gabriela Saldanha. (2019).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electronic resource] / Third edition, Routledge, New York.
- Billeter, J. F. (2006). *Contre François Jullien*, Allia.
- Baron, O. A. & Baron J. F.(2005). 『녹양이 천만사인들 (*Le Saule aux dix mille rameaux*)』 Éditions UNESCO, Paris.
- Eschyle. (1982). *Tragédies complètes*, (Paul Mazon trans), Gallimard.
- Jullien, F. (1991). *Éloge de la fadeur*, Philippe Picquier.
- Genette, G. (1979). *Introduction à l’architexte*, Seuil.
- Genette, G. (1982). *Palimpsestes. La littérature au second degré*, Seuil.
- Kim, M. (2000). 『구운몽 (*Le songe des neuf nuage*)』, (J. Park and G. T. Park, Trans.), Maisonneuve & Larose.
- Kurbanov, S. (2016). “Classical Literature in the Global Era : Its Value and How to Share it”, Workshop for translation and publishing Korean Literature organized by KLTI.
- Li, J-M. (2008). “Study on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 in France” in *Translating Korean classical materials abroad: the current state and the tasks ahead*, 103-142,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yemyung University Press,
- Michael, A. (1997). “Ezra Pound as Translator”, *Translation and Literature*, vol. 6,1: 23-30.
- Virgile. (2016). *Énéide*, (Paul Veyne trans.), Albin Michel.
- 작가미상. (1999). *Le Chant de la fidèle Chunhyang*, (M.. Choi and J-N Juttet, Trans), Zulma
- 작가미상. (2012). *Sugungga*, (Y. Han and H. Péjaudier, Trans), Imago.

[인터넷 자료]

한국고전문학DB (2021.02) <https://db.itkc.or.kr/>

한국문학번역출판통계 (2021.02) <https://library.ltikorea.or.kr/statistic/tab2>

한국문학지원출판현황(2021.02) <https://www.daesan.or.kr>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33657&cid=60555&categoryId=60555>
(2021.02)

This paper was received on 8 May 2023; revised on 12 June 2023; and accepted on 20 June 2023.

Author's email address

wafwaf@ewha.ac.kr

About the author

Choi Mikyung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opics related to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www.kci.go.kr